

# 정유, 중국 지준율 인하 “수혜”

삼성증권, 재고확보용 수요 증가 ... 단기적으로는 화학이 강세

국내 화학기업들이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증권은 “중국의 2차 지준율 인하는 당분간 재고 확보용 수요를 증가시켜 화학시장 개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2월21일 발표했다.

삼성증권 김승우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화학이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석유정제가 유리할 것”이라며 “현재의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이 3월 말까지 유지된다면 정유기업들이 1/4분기 깜짝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2월24일부터 인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월18일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21>